



비잔티움의 오토마타

- 솔로몬 보좌를 중심으로



김차규 | 명지대

I. 들어가는 말

오토마타(automata)는 자동기계로 지정된 일련의 동작을 자동으로 따르거나 지정된 명령에 응답하도록 설계된 기계 또는 제어 기계장치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꾸기 시계를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오토마타는 “자기 뜻대로 행동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αὐτόματον(automaton)의 라틴화된 단어 오토마톤(automaton)의 복수형인데, 오토마톤은 ‘자동문 개폐장치’ 혹은 ‘바퀴달린 삼각대의 자동이동’을 묘사하기 위해 호메로스가 처음 사용한 단어이다.¹⁾ 고대 그리스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존재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오토마타를 비롯하여 오토마타가 사용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오토마타는 헬레니즘 시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우리는 유압장치, 공압장치 및 역학에 대한 헤론(Heron)의 글을 통해 자동판매기, 물 펌프, 바람 기관, 기력계(기원전 2세기에 발명된 최초의 증기기관) 등이 포함된 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정교한 고대 그리스 역학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티키테라 기계는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1) Homer, Iliad, 5.749 혹은 18.376.

그렇다면 비잔티움 시대 오토마타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 대표적인 예는 10세기에 존재했던 황제가 앉았던 의자인 ‘솔로몬 보좌’다. 솔로몬 보좌는 유대 전설과 페르시아 전설 등이 전해져오고 있다. 본 발표자는 이러한 전설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10세기에 존재했던 비잔티움 시대의 황제의 보좌였던 ‘솔로몬 보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솔로몬 보좌

1. 유대 전설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내용은 구약 열왕기상 10장 18절-20절에 나타난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 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하지만 이 보좌를 만들 때 기계장치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열 두 사자가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였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하여 그가 즉위할 때 그를 왕으로 맞이하도록 기계동물들을 사용하여 보좌를 설계했다고 한다. 그 장치는 독수리가 앉아서 머리에 왕관을 쓰면 비둘기가 토라 두루마리를 가져오는 장치였다고 한다. 솔로몬 왕이 보좌를 밟았을 때 기계장치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첫발을 밟자마자 황금 황소와 황금 사자가 한 발을 내밀어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한다. 양측에서 동물들은 그가 보좌에 안락하게 앉을 때까지 그를 도왔다고 한다.²⁾ 이러한 유대인의 전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다음 내용과도 연계된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보좌가 바빌론으로 옮겨졌고 아하수에로가 솔로몬 보좌에 앉았다고 한다.³⁾ 또 다른 전통에 따르면 여섯 층계는 지구에 대한 여섯 가지 용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⁴⁾ 솔로몬 왕의 보좌는 어느 왕도 앉아 본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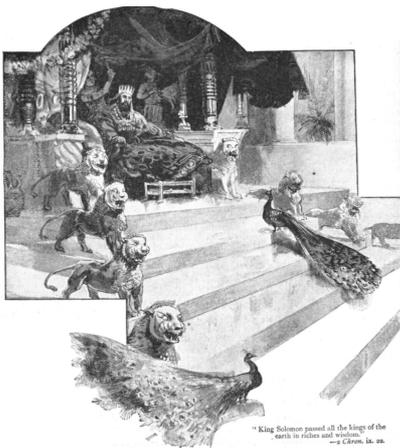
2) https://www.chabad.org/holidays/purim/article_cdo/aid/1345/jewish/King-Solomons-Throne.htm

3) 구약성경 ‘에스더 서’의 아람어 설교집인 Targum Sheni는 “이 날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도인 수산에 있는 보좌에 앉았을 때”(에스 1:2)라고 기록하고 있다. Alexei M. Sivertsev, *Judaism and Imperial Ideology in Late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22 “아하수에로가 솔로몬의 보좌에 앉았던 전통은 이미 3세기 중반에 알려졌다... On the title cosmocrator in Rabbinic literature, see Krauss, *Paras we-Romi*, 87-89; Shimoff, “Hellenization among the Rabbis,” 184-85.”

4) Joseph Verheyden *The Figure of Solomon in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Tradition* 2012 Page 132 “Six steps lead up to the throne in reference to the six terms for the earth (Erez, Adamah, Arqa, Ge, Zia, Neshiah—Tebel is not included here), the six ... a king. it had six steps and it rose above these six steps, and it had six paths each with six steps, and on each step were two lions and one ... ; Shmuel Safrai, Peter J. Tomson *The*

보좌였다. 그것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덮여있었다. 그것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및 기타 보석으로 장식되어 가장 찬란하면서도 눈부시고, 가장 매혹적인 색조와 색상으로 빛났다고 한다. 여섯 계단을 오르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각 계단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계명 중 하나씩이라는 것을 왕에게 일깨워준다. 첫 번째 계단에는 황금 사자가 반대편에 있는 황금 황소를 마주보고 누워 있다. 두 번째 계단에는 황금 늑대가 황금 어린 양을 마주보고 있다. 세 번째 계단에는 황금 호랑이가 황금 낙타를 마주보고 있다. 네 번째 계단에는 황금 독수리가 황금 공작을 마주보고 있다. 다섯 번째 계단에는 황금 고양이와 황금 수탉을 마주보고 있다. 여섯 번째 계단에는 황금 매가 황금 비둘기를 마주보고 있다. 더 높은 곳인 보좌 위에는 황금 비둘기가 부리에 황금 매를 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 열왕기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한편 보좌로 오르는 측면에는 금 컵, 손잡이, 꽃, 꽃과 꽃잎으로 장식된 순금으로 만든 정교한 큰 촛대(Menorah)를 세웠다. 이 촛대는 위쪽으로 향한 일곱 개의 가지를 갖고 있다. 한쪽 가지에는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욥 등 7명의 조상들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져 있다. 또 다른 촛대의 일곱 가지에는 레위, 고핫, 암람, 모세, 아론, 엘닷, 메닷, 그리고 쿠르(Chur) 등 가장 경건한 7명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져 있다. 보좌의 양쪽에는 특별한 황금의자 하나, 대제사장을 위한 의자 하나, 보좌대제사장(assistant High Priest)을 위한 의자 하나가 놓여있고 그 주위로 산헤드린의 장로 7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24개의 황금 포도넝쿨이 보좌 위에 지붕 모양으로 거대한 덮개를 형성했다.



솔로몬 왕이 보좌를 밟았을 때 기계 장치가 작동되었다. 그가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황금 황소와 황금 사자가 각각 한 발씩 뻗으며 그를 떠받치고, 그가 다음 걸음으로 올라오는 것을 도왔다. 각 측면에서 동물들은 왕이 편안하게 왕좌에 앉을 때까지 왕을 도왔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황금 독수리가 큰 왕관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의 이마 바로 위에 얹어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였다.

그 때에 황금 비둘기가 거룩한 방주 위를 날아 토라의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와 토라의 계명에 따라 솔로몬 왕의 무릎에 얹었다. 토라는 왕의 통치기간 동안 항상 왕과 함께하며 왕으로 하여금 유대민족을 다스리도록 인도한다. 그 때 대제사장과 보좌대제사장 그리고 70명의 장

Literature of the Sages -2006 Volume 2 - Page 182 "The teachings of the Babylonian rabbis... the allegorical significance of the six steps to the throne of Solomon; the throne in captivity (1:12);"

로들은 모두 일어나 왕에게 인사를 한 다음 앉아서 심판을 위해 제기 된 사건의 내용을 듣는다.

솔로몬 왕의 보좌는 모든 왕과 왕자들의 이야기 거리였다. 그들은 보좌의 경이로움에 경탄했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몇 년 후 파라오 네체가 예후다(Yehudah) 땅을 침략했을 때 그는 이 멋진 보좌를 빼앗아 갔다. 하지만 그가 이 보좌에 앉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을 때 황금 사자는 그의 허벅지에 킁을 날렸는데 그 때문에 그는 넘어져 불구자가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절름발이”라는 뜻의 네체(Necheh)라고 불렸다. 이 내용은 다음에 언급하게 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네체가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눈에 네체는 보편적인 군주가 될 인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편적인 군주에 대해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하여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솔로몬 보좌”는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티움 제국 법정에 있었던 솔로몬의 여러 물건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⁵⁾ 그렇다면 유대인의 전통에 나오는 솔로몬 보좌와 콘스탄티노플의 솔로몬 보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페르시아 전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Arta)Xerxes) 혹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로 알려진 아하수에로(Ahasuerus ; Achashverosh) 왕이 보좌에 오르려고 할 때 그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선언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솔로몬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왜 페르시아 보좌가 아닌 이방국 그것도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보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까?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 전통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들의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며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본 발표자는 생각한다. 구약성경의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유대인 대우는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을 이어받은 현명한 군주로서의 아하수에로의 이미지 만들기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하수에로의 솔로몬 보좌 사용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대적 전통은 아하수에로를 “두 번째 솔로몬”으로 더 이상 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5) Kieckhefer, Richard (1989), *Magic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1. “visited the imperial court at Constantinople and reported on the marvelous Throne of Solomon displayed there” ; Tougher, Shaun (1997), *The Reign of Leo VI (886-912): Politics and People*, Leiden: Brill. p. 124. “One of the most intriguing Solomonic objects kept at Constantinople was the throne of Solomon, which is named only by the Book of Ceremonies.”

하지만 라아난 부스탄(Ra'anan Boustan)은 미드라시(구약 성서에 대한 고대 유대인의 주석)적 논평⁶⁾을 인용하면서 아하수에로의 왕국은 세계 제국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통치자는 솔로몬 왕좌의 열등한 복제품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솔로몬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랍비 문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통치자(cosmocrator)만이 그곳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이러한 주장은 후대 유대인 전통에서 나타나는 현명한 솔로몬의 보좌가 로마로 옮겨갔다고 하는 주장에 근거하여 페르시아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후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아하수에로가 솔로몬 보좌에 앉으려고 했을 때 그는 엉덩이를 걷어차여 쓰러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 보좌에 다시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에 그는 이집트의 훌륭한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한 팀을 보내서 솔로몬 왕의 보좌와 비슷한 보좌를 자기를 위해 세우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고 한다. 거의 3년 동안 위대한 이집트의 기술자들이 왕을 위해 보좌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그 보좌는 완성되었고 아하수에로는 큰 잔치를 베풀도록 명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아하수에로의 솔로몬 보좌는 복제품이라는 것을 후세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페르시아를 폄하하고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로마시대의 유대인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보여진다.

알렉세이 시버트세프(Alexei M. Sivertsev)에 따르면 아하수에로가 솔로몬 왕좌에 앉았다는 전통은 이미 3세기 중반에 알려졌으며, 솔로몬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 동일하게 보이는 두 개의 왕좌에서 정의를 관리하는 모습을 묘사한 시리아의 Duro Europo의 벽화에는 아하수에로의 왕좌가 어떤 식으로든 솔로몬의 보좌의 열등한 복제품이라는 표시는 없다고 주장한다.⁸⁾ 다만 이 그림들을 후세에 알린 유대적 전통이 아하수에로 왕이 솔로몬 왕의 보좌를 물려받았다고 가정했을 것이라고 유추해석을 해 볼 수 있다.

Ⅲ. 비잔티움 오토마타

비잔티움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의 오토마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에는 비잔티움 황제가 만족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오토마타를 선보였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법정에서 선보인 오토마타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천정을 향해 그를 끌어올리는 보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계적 경이는 영향력있는 그들의 무기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안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비잔티움 예복은 부피가 컸기 때문에 황제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보좌에 좌석 벨트가 있었는지도

6) *Esth. R.* 1:12. Louis Ginzberg, *The legends of the Jews*, vol.6,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28, pp. 296-298, n. 69-73.

7) Alexei M. Sivertsev, *Judaism and Imperial Ideology in Late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22.

8) Alexei M. Sivertsev, *Judaism and Imperial Ideology in Late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22.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테오파네스 콘티누아투스(Theophanes Continuatus)의 원사료를 통해 수학자 레오(790-870)가 기술자 중 한 명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찾을 수 없다. 사실 레오는 움직이는 새, 포효하는 사자, 공중에 뜨는 황제의 보좌 등 몇 가지 오토마타를 발명했다고 한다. 칼리프 알 마문은 비잔티움의 황제인 테오필로스(829-842)에게 2,000 파운드의 금과 영구적인 평화를 제시하면서 과학, 수학에 재능을 보인 레오를 잠시 빌려달라고 했을 정도였다.⁹⁾

테오파네스 콘티누아투스는 「미카엘의 생애(Vita Michaelis)」에서 테오필로스 황제가 오토마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미카엘 3세(842-867)가 그것을 부수어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다른 연대기 또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¹⁾ 그리고 이 시대의 아랍의 지리학자 하룬 이븐 야하(Harun ibn Yahya)¹²⁾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 교회 돔 꼭대기에 청동새가 있는데 올리브 철에 개똥지빠귀 소리를 냈다고 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새들은 모두 부리로 올리브 하나를 두 발톱으로 올리브 돌을 모아 청동새에게로 날아가 떨어뜨렸는데 그때 모아진 올리브들은 기름으로 압축되어 그 지역의 가축 새들을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¹³⁾ 이 이야기는 청동새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레오가 발명했다는 공중에 뜨는 황제의 보좌와 유사한 이야기가 그 다음 세기에 등장한다. 바로 콘스탄티노스 7세 포르피로게니토스(913-954) 황제의 ‘예식론(De Ceremoniis)’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다. 이 작품 2권 15장(ii, 15)에는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솔로몬 보좌로 보이는 의자가 등장한다. 이 보좌는 외국특사들이 비잔티움을 방문했을 때 마그나우라(Magnaaura) 궁전의 큰 식당(the Great Triclinium)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황제가 이 ‘솔

9) Treadgold, Warren T., "The Chronological Accuracy of the Chronicle of Symeon the Logothete for the Years 813-845", *Dumbarton Oaks Papers*, Vol. 33(1979), p. 172.

10) *Vita Michaelis* 21, Bonn ed., 1838, p. 173. 11.6-10.

11) A. R. Littlewood, *Gardens of the palaces, in Byzantine Court Culture from 829 to 1204*,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Washington, D.C., p. 32. n. 139. Symeon Magistros, apud Theoph. Cont., 627. 659; George Monachos, *Vita Michaelis cum matre Theodora* 6, apud Theoph. Cont., Bonn ed., 793; Leo Gramm., Bonn ed., 215; Kedrenos, Bonn ed., II, 160; Zonaras 16.3, ed. L. Dindorf (Leipzig, 1868-75), IV, 8-9; Michael Glykas, Bonn ed. (1836) 547, 543; Constantine Manasses 4793-4803, 5070-79, Bonn ed. (1837), 205, 216-17; Theodosios of Melitene, ed. T.F.L. Tafel, *Theodosii Meliteni qui fertur Chronographia ex Codice Graeco Regiae Bibliothecae Monicensis*, Monumenta Saecularia von der königlich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3.1 (Munich, 1859), 148. 그 외 다음 글도 참조하라. D. Serruys, "Recherches sur l'épitomé." *BZ* 16 (1907), 15와 J. Psichari, "L'arbre chantant," in *Mélanges offerts à M. Emile Chatelain* (Paris, 1910), 628-33.

12) Ruth Macrides, *Travel in the Byzantine World*,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17, pp. 183-185. 시리아인이었던 하룬 이븐 야하는 886년 경 비잔티움 전쟁 포로로 잡혀 콘스탄티노플에서 포로생활을 했다. 그는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후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영국까지 갔다. 그의 글은 10세기 초 이븐 루스타흐(Ibn Rusrtah)에 의해 단지 일부만이 보존되었다.

13) A. A. Vasiliev, 'Harun-Ibn-Yahya and his Description of Constantinople', *SfC*, 5 (1932), 149-163, esp. 157. 다음 책도 참조하라. *Le Livre des Atours Précieux d'Ibn Rustah*, cité dans M. F. Auzepy, M. Kaplan, B. Martin-Hisard, *La Chrétienté orientale du début du VI^e siècle au milieu du X^e siècle*, Paris, Sedes, 1996와 N. E. Hermes, *The [European] Other in Medieval Arabic Literature and Culture: Ninth-Twelfth Century AD* (New York, 2012), pp. 72-80.

로몬 보좌 위에(ἐπὶ τοῦ Σολομωντειοῦ θρόνου) 앉아 있었다는 것과 레오가 발명했다는 공중에 뜨는 황제의 보좌와 ‘예식론’에 등장하는 보좌가 같은 물건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솔로몬 보좌’라는 용어가 문제다. 레오와 관련된 보좌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예식론’에는 ‘솔로몬 보좌’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 실제로 솔로몬이 사용했던 보좌이기 때문일까?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구약 열왕기상 10장 18절-20절에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 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968년 콘스탄티노플에 특사자격으로 갔던 크레모나의 리우트프란트의 회고록에는 청동이나 금박을 입힌 나무로 만든 사자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층계가 여섯인지 그리고 사자가 몇 마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약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보좌는 기계장치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고 열 두 사자가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였다는 기록도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잔티움 황제가 앉은 보좌는 솔로몬이 사용했던 보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7세기 초반 헤라클레이오스의 등장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시스템의 상징적인 화석화를 보여주는 비잔티움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황폐화된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노쇠해진 행정기구도 제대로 작동되지도 못했다. 또한 아바르족, 슬라브족 그리고 페르시아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층적인 쇄신을 해야만 했다. 테마제도가 등장하고 제국의 공용어가 라틴어에서 그리스로 바뀌고 황제의 칭호를 비롯하여 지배자의 칭호들이 그리스어로 바뀌는 등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를 위해 황제는 먼저 신칙법을 제정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칙법 IV(Novel IV)에 나타난 황제의 칭호 변화이다.¹⁴⁾ 샤히드(Shahid)에 따르면 바실레우스(Basileus)라는 칭호는 황제를 의미하는 임페라토르(Imperator)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칭호로 기독교적 공명심을 정확하게 부각시키는 칭호라고 한다.¹⁵⁾ 또한 스펜스 알렉산더에 따르면 바실레우스(Basileus)라는 칭호는 구약의 왕들 특히 동시대의 다윗 판(David Plates)에 묘사된 다윗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된 칭호라고 한다.¹⁶⁾ 다시 말해 ‘바실레우스’라는 황제의 칭호는 상징적인 면

14) M. T. G. Humphreys, *Law, Power, and Imperial Ideology in the Iconoclast Era, C.680-850*,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26 ; J. Konidaris, 'Die Novellen des Kaiser Herakleios', *FM V* (Frankfurt, 1982), pp. 33-106.

15) I. Shahid, "The Iranian factor in Byzantine during the reign of Heraclius", *DOP* 26(1972), pp. 293-320.

16) S. Spain Alexander, 'Heraclius Byzantine imperial ideology and the David Plates', *Speculum* 52 (1977),

에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 이스라엘의 후계자라는 로마의 랍비 신화는 이스라엘에서 후속 제국으로 왕족의 휘장이 옮겨갔다는 전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을 입증하기 위해 라아난 부스탄(Ra'anan Boustan)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과거에서부터 로마의 지배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미래 변호에 이르기까지, 신의 은총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이스라엘 왕족들의 왕권의 상징물들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활용했다”고 한다.¹⁷⁾

또한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는 비잔티움 제국을 ‘이스라엘’, 콘스탄티노플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다. 헤라클레이오스와 동시대 인물인 테오도로스 신켈로스(Theodoros Syncellos)는 626년 아바르족과 페르시아인들에 대항한 콘스탄티노플 방어를 기념하는 설교에서 626년 전쟁과 관련하여 구약의 예언서와 역사서에 대한 정교한 해석을 제시하며 위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⁸⁾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제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에서 9-10세기에도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다윗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보편적 통치자’라는 솔로몬을 등장시킴으로써 서유럽의 프랑크 제국의 황제와 비교했을 때 10세기의 비잔티움의 마케도니아 황조가 더욱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968년 특사자격(두 번째 특사자격)으로 콘스탄티노플로 갔던 크레모나의 리우트프란트(Liutprand of Cremona)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¹⁹⁾ :

황제의 보좌 앞에는 금박을 입힌 청동나무가 세워져 있었고 그 가지에도 금박을 입힌 청동 새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새들이 내는 소리는 진짜 새소리에 가까웠다. 황제의 보좌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어떤 순간에는 땅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순간에는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이 보좌는 거대했으며 청동이나 금박을 입힌 나무로 만든 사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자는 꼬리로 땅을 치고 입을 벌려 혀를 떨면서 울부짖었다. 나는 두 내시의 어깨에 기대어 황제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보좌쪽으로) 오르자 사자들은 포효하기 시작했고 새들은 각기 종류대로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나는 세 번 엎드려 황제에게 절을 한

pp.217-237. 세속적인 것의 더 넓은 기독교화의 증거로는 R. Leader, "The David Plates revisited: transforming the secular in early Byzantium", *Art Bulletin* 82 (2000), pp.407-427를 참조하라.

17) Ra'anan Boustan, "The Spoils of the Jerusalem Temple at Rome and Constantinople: Jewish Counter-Geography in a Christianizing Empire", in *Antiquity in Antiquity: Jewish and Christian Pasts in the Greco-Roman World*, ed. by Gregg Gardner, Kevin Lee Osterloh, 2008, p. 363.

18) Alexei M. Sivertsev, *Judaism and Imperial Ideology in Late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9. L. Sternbach, *De Georgii Pisidae apud Theophanem aliosque historicos reliquiis* (Cracovia, 1900)를 참조하라. 이 책의 불어판 번역은 F. Makk, *Traduction et commentaire de l'homélie écrite probablement par Théodore le Syncelle sur le siege de Constantinople en 626* (Szeged, 1975).

19) G. Brett, 'The automata in the Byzantine "Throne of Solomon"', *Speculum* 29 (1954), pp. 477-87.

후에 고개를 들어보았다. 내가 지상에서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방금 본 그 남자(황제)는 지금 예복을 바꿔 입고 홀의 천장처럼 높게 앉아 있었다. 와인 프레스의 목재를 올리는데 사용되는 어떤 기계에 의해 들어올려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 수 없었다.²⁰⁾

위와 같은 내용은 비잔티움 황제들이 오토마타인 솔로몬 보좌의 움직임을 통해 외국 특사들의 기를 죽여 외교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편적 통치자’라는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간 보좌, 더욱이 그냥 보좌가 아닌 오토마타 보좌는 특사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레오의 발명품과 ‘예식론’에 등장하는 보좌가 같은 물건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분명치 않다. 같은 물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포르피로게니토스 황제의 ‘예식론’에 관한 책에서 분명히 “솔로몬의 보좌”와 관련된 세 가지 자동장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 언급 속에는 노래하는 새가 앉아 있는 나무, 포효하는 사자, 움직이는 짐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같은 물건으로 보이며, 이 보좌를 담당하는 기술자도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IV. 나가는 말

비잔티움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의 오토마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오토마타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기계장치다. 비잔티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토마타들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솔로몬 보좌’다. 이 용어는 콘스탄티노스 7세 포르피로게니토스(913-954) 황제의 ‘예식론’에 등장하는 용어로 그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다. 비잔티움 황제의 보좌는 원사료에 특별한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다윗을 계승한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림으로써 모든 기독교 국가들에 다윗을 계승한 장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움과 동시에 솔로몬이 가졌던 ‘보편적 통치자’로서의 권위도 동시에 갖고자 했기 때문이다.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외교에 있어 대단히 중요했다. 특히 ‘로마 계승’이라는 문제를 놓고 프랑크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신성로마제국과 경쟁하는 9세기-10세기에 비잔티움 황제의 권위 높이는 이들 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준다.

또한 ‘솔로몬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였다. 이는 외국 특사들의 기를 죽이고 외교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 한 비잔티움 제국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다. 움직이는 오토마타가 보여주는 연출 장면은 이러한 연출

20) J. Becker, Antapodosis (Hannover-Leipzig, 1915, VI.5, tr. Mango, *Art of the Byzantine Empire*, 209-10.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국특사들에게는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아마 특사들은 이러한 연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의 위대함과 저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위축되었을 것이다.